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8년
2019년 02월 28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2호

불교총지종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진호국가를 기원하며 자녀 잘되기 불공도 함께 서원

불교총지종은 전국 사원에서 2월 19일부터 상반기 49일 불공을 시작했다. 입재일을 맞아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관성사에서 유가 삼밀의궤를 집공하였다.

통리원장 인성 정사는 종조법설집 수행편에 있는 부도(여자가 자켜야 할도리)를 읽고 상반기 49일 불공기간이 국가안녕과 자녀의 가정안정과 장차 나라의 큰 인물이 되기를 서원하고 축원하는 불공기간임을 설했다. 설법을 통해 "원정대성사님께서는 부인의 역할은 가정의 생명체이며 영원히 가지는 귀한 보배라 남편을 내조로 성공시키고 자녀는 반드시 큰 인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인물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라며 부인의 역할에 대해 설하고, "매년 하는 불공기간이라고 느슨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살님들께서는 국가의 안녕과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상반기 49일 불공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며 상반기 불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교총지종은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상반기 49일 불공이 계속되며 49일 동안 수호국계주 진언으로 진호국가 불공 의궤를 전국 교도와 함께 불공한다.

진호국가불공은 불교총지종 창종과 함께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정진할 것을 결정했다.

'종조님은 밀교 특유의 진호국가법으로 외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위하고 안으로는 전 국민들에게 호국사상을 일으켜서 철통같은 단결로서 외적을 물리칠 국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호국계주경법(守護國界主經法)』을 선포하고 승단 전 스승과 전 교도가 실천하도록 지시하셨다. 조국평화통일 기원은 매일, 진호국가불공은 49일을 년 2회, 종단의 전 교구가 일제히 영구정진한다.' 고 불교총지종 교사에 기록되어 있다.

진호국가불공으로 남북 한반도 평화협정과 종전 선언으로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부산 정각사 득락전 조성불사 진행

아미타 3존불 1,315존 원불에 불자들의 서원을 담아

부산 정각사는 본당 건물 2층에 아미타 삼존불을 모신 득락전을 조성하고 있다.

2층의 종무실과 회의실 등을 1층으로 옮기고 2층 전체를 득락전으로 조성하고 있다. 정면에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양쪽으로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그 뒤 벽면에 1315존의 원불을 모시고 부모, 조상영가 왕생성불 발원과 일체 소원성취 그리고 재난불생을 염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담고자 큰 불사가 진행 중이다.

조성되는 정각사 득락전은 정면에 아미타부처님을 주불로 하고 좌우 협시불로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시는 구조로 밀교의 만다라세계를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모셔진다. 외벽 쪽에는 극락왕생과 성불을 서원하는 아미타 원불을 모시는 감실이 배치되고, 그 앞쪽에 통로를 두고 좌로는 관세음보살 원불, 우로는 지장보살 원불을 감실에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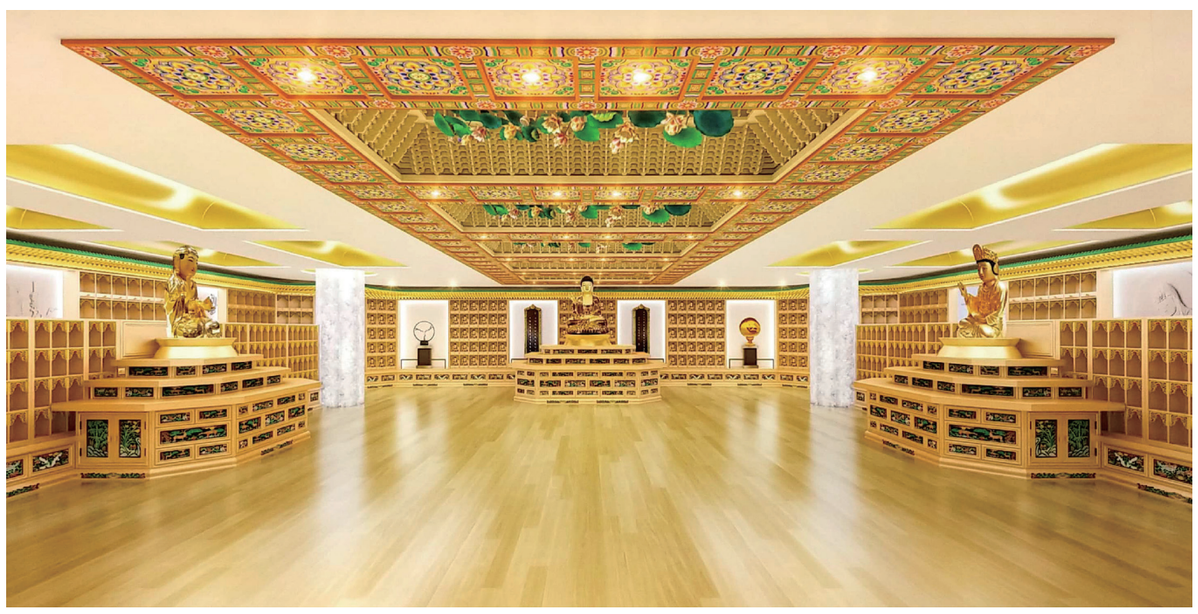
아미타불단은 높이 3단으로 구성 되어지고 전후좌우 어디서든 예불과 예경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다.

입구쪽에서 수미단까지 일직선상의 천장 다섯 곳에 설치된 중간 중간에 우물반자를 두어 점진적으로 격이 높아지며 승화되는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구현하게 된다.

닫집내부에는 극락세계의 하늘 연꽃밭과 봉황, 구름을 조각하고 단청하여 극락세계의 화려함을 표현한다. 아미타 부처님 위의 닫집에는 천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며 구름 속을 날아다니며 부처님을 호법하는 모습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단청으로 장엄함으로써 성불의 단계를 표현할 예정이다.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재단 건설국 김병구 국장은 '4월 말까지 공사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한다.

공사가 완공되면 정각사는 종단의 중심 사원으로서 역할에도 더 많아지고 아울러 포교에도 더 많은 역량을 발휘 할 것으로 종단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종/조/법/어 | 지혜 있는 행동을 행한 다음에는 곧 밝은 지혜의 과보를 얻는다

지면안내
3면 동해중 졸업식 봉행, 제19대 집행부 구성, 양지제1복지회관 정월대보름 행사
6면 단향사 사원탐방 / 10면 불교와 드라마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상반기 49일 불공정진으로 업장소멸과 즉신성불을 이루시고,
가정의 재난 소멸과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총기 48년 2월 19일 ~ 4월 8일 매일 오전 10시
장소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 02)552-1080~1083 | F. 02)552-1082 | www.chongji.or.kr

文대통령, "신계사 템플스테이, 금강산 관광 교두보"

7대 종교지도자 오찬… 국민통합 위한 종교 역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7대 종교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계 협력을 당부했다. 남북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 공동회장단을 초청해 청와대서 오찬을 가졌다. 2017년 12월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100주년을 맞는 3.1절에 앞서 마련됐다.

이 자리서 문 대통령은 남북 종교계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라면서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조계종에 대한 뒷받침은 물론이고 북한 측과 협의하는 것까지도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 취지에 맞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100주년을 맞은 3.1절을 기리는 동시 타종행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감사를 표하는 한편 종교계의 국민통합 역할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기미독립선언서가 대형 인쇄된 벽면을 마련해 행사장을 꾸미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0년 전 독립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면서 "선조들이 꿈꾼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국민통합의 길을 여는 데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해년 부처님오신날, '마음愛 자비, 세상愛 평화'

봉축위원회, 2월 13일 봉축표어 발표

불기 2563(2019)년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Compassion in the Heart, Peace to the World)'으로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2월 13일 올해의 봉축표어를 발표했다.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이 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고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봉축표어에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한 부처님 탄생에 깃든 기쁘침이 담겼다.

봉축위원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에는 삶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선언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의 자비정신, 모든 이들과 함께 행복해야한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다"며 "삶의 주인인 자신을 알아 언제나 자비정신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5월 3일 전통등전시회, 5월 4일 어울림마당·연등행렬·회향한마당, 5월 5일 전통문화마당·연등놀이로 이어진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봉축표어와 별개로 2017년부터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기본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다.

조계종, 동안거에 용맹정진, "일념삼매에 혼신을"

전국 100개 선원, 2월 19일 해제

조계종 소속 전국 100개 선원은 2월 19일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선원수좌회가 정진대중을 정리한 '무술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조계종 총림 8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6곳 등 총 100개 선원에서 총림 300명, 비구스님 1047명, 비구니스님 686명 등 총 2033명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무술년 동안거 해제를 앞둔 2월 14일 발표한 해제법어에서 대중들의 일상 속 부단한 정진을 독려했다. 진제 스님은 "지금까지 방장실을 찾아와 대장부의 기개를 펼치는 이를 보지 못한 것은 온갖 분별과 망상, 혼침에 시간을 뺏겨 화두일념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석 달간 얼마나 화두를 챙기고 의심했는지 각자가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경책했다.

진제 스님은 안거를 회향한 해제에도 일념삼매가 되도록 대중들의 지속적인 화두참구를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 승가 교육도량으로 도약

승려연수기관 인증 기념 특강 마련

재가자를 위한 포교 활동을 이어 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조계종 스님들을 위한 연수 기관으로 등록돼 스님과 재가 모두를 아우르는 교육 도량으로 도약한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법해)은 2019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기관으로 인증 받고 이를 기념하는 특강을 마련한다.

특강은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화엄 세계의 이해'란 제목으로 3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신동아 오피스텔 5층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진행된다.

이어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특강도 이어진다. 신 교수의 특강은 3월 19일 ~ 4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강의 주제는 '경전에 근거한 재가불자들의 수행방법'이며 특강 참가비는 모두 무료이다.

승려 연수는 유식 30송을 주제로 이번 해 9월에 열리며 이만 동국대 명예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19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 과정은 △기초교리학과 △불교학과 △대학원 △수화과 △다도과가 있으며 힐링과정으로는 △웰빙힐링장생아카데미 △민요반, 대금금반, 사물놀이단 △합창단이 개설된다. 특히 불교문화포교사에 도전할 수 있는 불교문화학과도 모집 중이다. 입학식은 3월 11일 오후 7시이다.

만해 스님 기상 서린 '심우장' 사적 지정

문화재청 지정예고… 이봉창 의사 유물은 문화재로

만해 스님의 마지막 주석처였던 '심우장'(서울특별시기념물 제7호)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항일독립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또한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933년에 건립해 마지막까지 주석한 곳이다.

'심우(尋牛)'이란 명칭은 선종(禪宗)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10가지 수행단계중 하나에서 유래했다. 소를 사람에 비유해 '잃어버린 나를 찾자'는 의미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종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면서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록된 '구리 한용운 묘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3건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정·등록될 예정이다.

박나래 '나 혼자 산다' … "템플스테이 좋아요"

사찰음식 맛에 '엄지 척', 눈 치우기 등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개그우먼 박나래의 벽양사 템플스테이가 방송된 후 벽양사와 템플스테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고조됐다. '벽양사','템플스테이' 등의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방송 직후 벽양사 홈페이지가 수많은 접속자들로 다운되기도 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박나래의 템플스테이는 2월 8일과 15일 2회에 걸쳐 방송됐다. 박나래가 찾은 벽양사는 장성에 위치한 조계종 제18교구본사다. 특히 벽양사 산내암자인 천진암에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에 소개된 사찰음식 대가 정관 스님이 상주해 외국인 참가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정관 스님에게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과 천진암을 찾은 박나래는 크게 당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음식 잘하기로 소문난 그지만 육류와 어류는 그렇다 치고 과와 마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 정관 스님은 손수 기른 제철 채소와 자연이 빚은 19년된 간장 등을 사용해 녹두전, 톳 두부 무침, 미역 나물, 능이버섯 떡국 등을 만들어냈고, 박나래는 물론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세계인이 함께 명상하는 치유·문화 공간

전주 세계평화명상센터 기공식, 2021년 1월 개원 목표

전주 혁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황방산 서고사(주지 서림 스님)에 시민과 불자들의 치유와 수행의 장이될 세계평화명상센터가 들어선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성우 스님)는 1월31일 전주시 만성동 서고사에서 세계평화명상센터 기공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주지 성우, 부주지 일원 스님 등 17교구 본말사 스님 30여명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김성권 총무원장 정책특보, 정동영·정운천·김광수 국회의원, 김송일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양원 전주부시장 등 정관계 인사를 포함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법문을 통해 "명상센터는 종교를 떠나 지구촌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명상하고 문화공연을 즐기며 캠핑도 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라며 "명실상부한 요익중생의 도량으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제49회 졸업식 봉행

통리원장 인선 정사, "동해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길 당부"

불교총지종 종립 학교인 동해중학교가 2월 1일 제49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장에서 동해중학교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먼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가치관으로 실천적 목표의식을 가져주길 바라며 건강한 육체와 정신은 삶의 기본 재산이므로 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줄 것과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성실성으로 삶의 초석을 갖추고 지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져 항상 발전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덕체를 겸비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앞날의 지도자상을 늘 가슴에 새기며 동해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활해 주길 당부합니다." 며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자기계발에 매진해 줄 것을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학교법인 관음학사 이사장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랬소 우리 동해중학교에서 갈고 닦은 소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들을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서도 결코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동해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않아야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최고보다는 최선으로, 도덕적 양심과 인격적 지도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은덕도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녀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금껏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 주신 본교의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앞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축원을 했다.

법경 정사, 동국대학교 우수 강좌 및 강사에 선정

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가 동국대학교 강좌 중 우수 강좌 및 강사로 선정되었다. 법경 정사는 지난해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국대학교 교양강좌 '불교와 인간'을 맡아 강의하여 왔는데, 지난 학기 708개 강좌 가운데 상위 10% 내에 들어 우수 강좌 및 강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1학기에는 강좌가 더 늘어서 동국대학교 본교 및 고양일산캠퍼스로 출강하게 된다. 이번 강좌는 붓다의 생애, 붓다의 근본교설, 경전의 결집, 불교의 주요사상, 대승불교, 사찰에 담긴 원(願)과 의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이상록 단장 연임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신임 단장으로 이상록 단장이 연임되었다. 임기는 총기 48년 1월 15일부터 총기 51년 1월 14일로 3년간 단장직을 맡게 되었다.

이상록 단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신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의 다짐으로 작고 부족하지만 봉사인이 되겠습니다. 단원들과 화합하고 돈독하게 즐겁게 노래하며 부처님께 정성으로 음성공양 기도 올리듯 나아가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다라합창단은 만다라화음으로 우리들 마음속 삼독과 오욕을 물리쳐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역할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음성공양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총지종 2월 인사발령

발령사원	발령스승	발령사원	발령스승	발령사원	발령스승
개천사	주교 법등 정사	개천사	인덕심 전수	화음사	주교 우인 정사
화음사	보명심 전수	만보사	주교 안성 정사	만보사	유가해 전수
밀인사	주교 혜경 정사	밀인사	법수연 전수	수인사	주교 법일 정사
수인사	자행정 전수	벽룡사	주교 승원 정사	벽룡사	묘원화 전수

총지종 제19대 집행부 구성

창종 50주년 기념사업과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 성공개최 주문

제19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지난 18일 총무부장에 원당 정사, 재무부장에 덕광 정사, 교정부장에 승원 정사, 사회부장에 지정 정사를 각각 임명했다. 총무부장 원당 정사는 제9대 중앙종의원과 제17대 교정부장과 제18대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총지종 총본산인 총지사 주교를 맡고 있다. 재무부장 덕광 정사는 제10대와 11대, 12대 중앙종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실지사 주교를 맡고 있다. 교정부장 승원 정사는 제9대와 11대, 12대 중앙종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벽룡사 주교를 맡고 있다. 사회부장 지정 정사는 제10대 중앙종의원과 제16대와 17대, 18대 사회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충청전라교구장과 흥국사 주교를 맡고 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창종 50주년을 맞이해서 종단이 도약할 수 있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19대 집행부의 당면 과제다."라며 제19대 통리원장 임기 내 창종 50주년 기념사업과 국제재가불교지도자 서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선 과제로 꼽으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의 뜻을 밝혔다.

한국종단협의회 이사회, 통리원장 인선 정사 참석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2월 21일 10시 30분 '2019년도 제55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안건으로 상정된 종단협의회 정관개정과 임원변경, 2018년도 세입·세출 회계결산, 감사결과, 종단협 의전 순서, 제22차 한중일 우호교류 예비회의 개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신규 회원종단 가입,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국문화소개 사업 진행, 불기2563년 봉축행사 봉행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양지동 제1복지회관 '제4회 놀이마당' 정월 대보름 행사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은 제4회 양지동 놀이마당 정월 대보름 행사를 지역주민들과 함께했다. 2월 15일 양지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모 나오면 황금돼지, 윷 나오면 복돼지" 정월 대보름 행사는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양지동 제1복지회관과 새마을부녀회가 공동 주관을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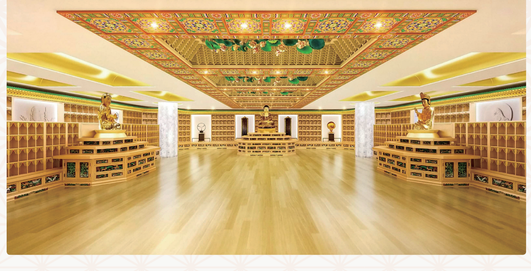
제4회 양지동 놀이마당 행사에는 유관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내빈들이 참석했다. 법인대표로 불교총지종 총무부장 원당정사(총지사 주교) 및 최순철, 이기석, 서정식 노인회장과 김태년 성남시 수정국 국회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유중진, 강신철, 신한로 성남시 의회 의원등이 참석했다.

양지동 제1복지회관 제4회 양지동 정월 대보름 공동주관자인 김병화 새마을부녀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 날 행사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민악 '숫대' 전통문화예술단의 전통놀이 공연과 척사대회가 열렸고, 전통체험 부스에서 놀이체험을 하는 등 즐거운 정월 대보름을 보냈다.

(복지법인=김태원)

불교총지종 정각사 득락전
아미타3존불과 1,315존 원불 조성불사

정각사에서 조성 중인 득락전 불사는
아미타 3존불과 1,315존 원불에 불자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부모 , 조상 영가 왕생성불 발원불,
일체 소원성취 발원불로 재난소멸과 소원을 이루세요 .



2019년 4월 불사 완공 예정

불교총지종 정각사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정진

정진(精進)

정진중은 지족(知足)하여 분외탐심(分外貪心) 내지 말며
정진중은 안인(安忍)하여 진에심(瞋恚心)을 내지 말며
정진중은 인과 믿고 우치사견(愚癡邪見) 내지 말며
정진중은 십선행(十善行)해 십악업(十惡業)을 짓지 말라

정진중에 특히 지족(知足)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칠일정진은 먼저 탁(濁)하고 뒤에 맑아지는 법이라 반드시 탐심에 대한 시련이 먼저 들어옴으로 지족으로서 이 시련에 속지 말고 극복하여야 칠일 후에 공덕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 종조법설집 -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늘 해오던 안부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그것인데 우리 보살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하나의 덕담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다루는 수행자로서는 이 말을 곰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거저 받아지는 것일까요? 내가 복을 짓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안부를 물을 때에는, 말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건네더라도 속으로는 '새해에는 복을 많이 지을시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을 많이 지어야 그만큼 복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이기에 더욱 더 복을 받는 것 보다는 짓는 것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중생들 중에서 복이 많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들이 복을 짓기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 지을 때도 있고, 복을 짓는 방법을 알지라도 탐심이라든지 여러 형편상 복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가 많은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손톱 위의 흙과도 같고 이슬과도 같습니다. 금방 있다가도 또 금세 없어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중생들이 박복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알뜰히 지어놓은 복을 제대로 간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새어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더욱 박복하여집니다. 박복하다는, 얇을 박(薄)의 복 복(福), 즉 복이 두껍지 못하고 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을 좀 지어 놓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입 밖으로 꺼내면서 복들을 다 까먹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샘을 하고 흉을 보며 자신의 복을 스스로 덜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지은 복도 삽시에 소멸시킵니다. 붉으락푸르락 얼굴색을 변하며 고함을 치고 성을 내면서도 복을 없앨 수도 있지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도 복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남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상대 탓으로만 생각하는 마음 자세조차도 지은 복을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업과 마찬가지로 복도, 다 마음과 뜻으로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을 간수하는 일은 마음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물질적인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사치하지 말고, 남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세숫대야면 충분한 물을 다섯, 여섯 대야씩 쓴다면 그 개울물이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으로 인해 나의 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이라도 허투루 쓰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찾아보면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행하는 분들일수록 수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복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어렵고 어렵게 지은 복을 잘 간수할 줄도 알아야 조금이라도 남을 게 있지 않을까요?

복 짓는 일을 부처님이 가르쳐주고, 스승님이 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줌으로 인해 마지못해 조금씩 쌓이는 것이 바로 중생들의 복 짓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해불공이 시작되는데, 새해불공은 1년 동안 이루어야 할 소원을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불공입니다. 아침 정송과 월초 불공, 사십구재 등과 마찬가지로 새해불공은 생활불교에 있어 종조님이 정해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향상될 수 있는 깨달음의 발걸음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원당에 나올 수 없으면, 가정에서 새해 불공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고, 하고자 했던 것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사분 정진을 하기로 애초에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사분 정진이란 넉 사(四)에 나눌 분(分)으로 정진을 하루에 네 번, 나누어서 하는 불공법입니다. 오분을 하든 십분을 하든 마음먹은 대로, 하루 네 번은 반드시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마음을 먹은 것이 곧 법이며, 그 법을 어기지 않고 행하는 것이 불공의 기본입니다.

중생이 발심을 하여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련의 단계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간다지만 특별한 서원을 이루려면 보통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몰고 높은 고개를 넘어갈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하여 가속기 페달을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기름도 평소보다 더 많이 들고 힘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공덕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평지를 가듯이 서원을 하면 고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행정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탤 가(加)에 행할 행(行)으로, 속도를 보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평소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을 해야 합니다.

사소하고 작은 습관들이 반복해서 쌓이면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업, 업장입니다. 금연하려던 사람이 삼 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태운다든지, 금주를 결심한 사람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다시 술잔을 입에 댔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업장의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휘둘려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담배도 끊고 싶고, 술도 그만 마시고 싶지만 내가 그동안 지어놓은 힘이 하도 크기 때문에 자꾸만 그 쪽으로 매달려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그러한 업장의 힘들을 조금씩 떼어놓고 소멸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희사를 하고 염송을 하는 것은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일입니다. 특히 새해산림불공을 할 때에는 희사와 염송에 더욱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지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때보다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을 덜어내는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지혜의 눈**

잉여인간과 중도적 공동체 윤리

"지금은 상호 의존의 측면 더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할 때"
"일(一)과 다(多)의 융섭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윤리 펼쳐야"

시내버스의 안내양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지 오래이다. 자동으로 잔금을 내주는 장치가 부착되면서부터다. 운전만 하던 운전사 아저씨는 일거리가 늘어난 반면 안내양들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상당수 안내양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됐다는 후문에 가슴 아파해야 했던 기억이 있다.

19세기 산업혁명기에 벌어진 기계파괴 운동은 인간이 편하고 싶어 만들어낸 기계가 도리어 인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의 하나였다. 하지만 그러한 저항으로 도도한 문명 발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늘날에도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아예 '잉여인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인간이 설 자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일부의 전망도 있지만 하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미흡하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공동체 윤리가 어떻게 자리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없던 때는 없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랐다. 근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중요성 뿐 아니라 개인 간, 또 개인과 사회 간 상호 의존의 측면도 부각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민주주의 내지 자본주의는 개인을,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는 공동체를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는 양측의 세대결로 점철됐다. 그에 실망한 나라들이 비동맹의 기치를 내걸기도 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기화로 소비에트 연방까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로 치부됐고 마르크시즘은 폐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동체라는 상호의존의 측면은 보통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지난해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라 해서 곳곳에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반향은 적은 것 같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상호 의존의 측면이 더욱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동물'이 사는 곳에서 사회 윤리가 세련되게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고통은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는 자유방임에 맡겨서도 안되고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끌고 가려해서도 안된다. 공동체를 무시한 지나친 개인주의는 능력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의 창의성을 무시한 전체주의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다고 기계적인 균형도 어려운 만큼 각 이념의 의의와 한계를 적절히 인식하고 활용하는 중도적 사고와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엇이든 한 쪽에 기울어서는 부작용을 낳는다. 인간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두 가지 모습, 즉 일(一)과 다(多)의 융섭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진화된 사회 윤리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불교계는 연중 각종 산림법회를 진행한다. 그 중 화엄산림에서 화엄은 〈대방광불화엄경〉을 가리키고 산림은 '죄절인아산 장양공덕림(罪折人我山 長養功德林)'을 줄인 말이라고 한다. 즉 "나다 너다 하는 아상과 교만의 산을 무너뜨리고 숲처럼 무성한 공덕을 가꾸라"는 뜻이다.

이러한 대승의 중도적인 윤리와 비슷한 맥락의 정신이 우분트(Ubuntu)에도 있다. 반투족 말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어느 한 편을 적대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함께 하는 불가분적인 관계의 장을 실현하려 노력할 때 공동체의 건강성은 배가될 것이다.

김봉래(불교방송 보도국 기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주소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22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공덕(1)

중생들이 고난과 액난을 당하여 괴로워할 때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칭명할 것으로 가르친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수많은 중생들이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받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에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하여 중생들이 고뇌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이루려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라고 하였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칭명염불 대신에 다라니를 지송한다. 칭명염불이나 다라니의 지송이 모두 마음을 통일하여 불보살님의 대위신력에 힘입어 고난에서 벗어나고 소원을 성취하고 지혜를 증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공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육자대명다라니를 항상 수지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지송할 때는 아홉 의 긍하사수 여래가 모이고, 또 미진수의 보살이 모이며, 다시 삼십이천의 천자들이 모두 모이고, 또한 사대천왕이 사방에서 그를 호위한다. 또 사아라용왕·무열뇌용왕·득차가용왕·바소지용왕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무수한 백 천만 구지 나유다의 많은 용왕이 와서 이 사람을 호위한다. 또 땅속의 야차며 허공신이 등이 있어 또한 이 사람을 호위한다.

라고 하여, 육자대명다라니를 지송하면 지송자가 머무는 곳 마다 수많은 불·보살과 천룡팔부의 신들이 와서 지송자를 수호한다.

선남자여, 그 진언을 지송하는 사람은 그의 뱃속의 모든 벌레도 반드시 퇴전하지 않는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면, 닿게 된 그 사람은 자비심을 일으키고, 모든 진실의 독을 여의어 반드시 퇴전하지 않는 보살이 될 수 있으며, 속히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받들어 지닌 사람의 손이 다른 사람의 몸에 닿으면, 닿게 된 그 사람은 속히 보살의 지위를 얻게 된다.

만약 이를 받들어 지닌 사람이 남자·여자·동남·동녀 내지는 다른 종류의 모든 유정들을 보게 되면, 보이게 된 자는 다 속히 보살위를 얻게 되느니라.

이처럼 지송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송자와 인연 있는 중생들까지도 육자대명다라니의 공덕을 입게 된다고 설한다.

육자대명다라니를 지송하면 세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세간적 현세이익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살위를 성취하고 구경에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여 성불에 이르게 된다고 출세간적 성취에 대하여서도 설하였다.

법상정사
연명의료 13

웰다잉법(Well-dying法)

"웰다잉법"이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의미합니다. "웰다잉법"에 대한 내용을 접하신 분들 중 "안락사"와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웰다잉"과 "안락사"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말기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안락사"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웰다잉(존엄사)"입니다. "웰다잉(존엄사)"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웰빙(well-being), 나이를 잘 먹는 웰에이징(well-aging), 한 번 뿐인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품위있게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 이젠 웰다잉 시대에 맞춘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웰다잉법"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문제점이 존재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비가 부담되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었지만, 안락사는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웰다잉법"을 악용해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 본인의 결정이 아닌 가족의 대리동의를 허용함으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이나 동의를 받은 후 연명치료 중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환자 본인의 뜻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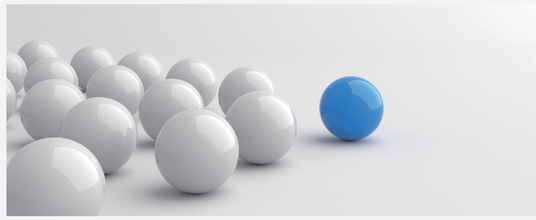
가족들의 대리동의로 인해 본인의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본인의지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가능성이나 임종기를 두고 의료진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가능성도 낮긴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의료진 또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오판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 지는 결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불심 초교리 보학

도현 정사

군중심리(群衆心理)



여러 대중의 영향으로 자신의 판단 혹은 결정을 의심하여 대중과 같이 하려는 군중심리(群衆心理)

공자의 학문을 이은 증삼은 맹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자사(子思)에게 그 학문을 전하여 공자의 사상이 맹자에게 까지 이어가도록 역할을 한 노(魯)나라의 학자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칭송하여 증자(曾子)라고 칭했다. 또한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공자가 그에게 효경을 저술하도록 했다는 설(說)도 있다. 그는 홀어머니를 모셨는데 정성이 매우 지극하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아들에 대한 신뢰가 매우 깊었다.

하루는 아들이 아직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의 어머니 혼자서 베틀에 앉아 베를 짜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달려와 말하기를 "증삼이 사람을 죽였답니다." 하고 이르나 증삼의 어머니는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오."하며 태연하게 베를 짜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다시 이웃에 사는 가까운 친척 되는 이가 찾아와 증삼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알려 주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설마 그럴 리가 없다며 베틀 앞을 떠나지 않으며 베를 짰다. 하지만 잠시 후 또 다른 친척이 찾아와 증삼이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지금 관에서 그 가족들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하자 증삼의 어머니는 베틀을 내팽개치고 담을 넘어 달아났다.

잠시 후 증삼이 돌아와 담을 넘어 달아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건너 마을에 자기랑 똑같은 증삼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살인을 해 관가에 잡혀 갔다고 일러 주었다.

거짓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 참이 될 수도 있다는 증삼살인(曾參殺人)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故事成語)다.

증삼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들 증삼을 잘 알고 신뢰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웃이 와서 아들이 살인을 했다고 했을 때 전혀 믿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좀 더 신원이 확실한 가까운 친척의 말에는 설마 하면서도 조금은 마음이 흔들렸다. 세 번째 친척의 말에는 아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만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자신에게 확신을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계속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 가졌던 확신을 의심하고 결국 여러 사람들 즉 군중들의 뜻에 동조하려는 인간의 마음, 그것을 군중심리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모두 군중심리가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군중심리로 나타나는 효과를 심리학에서는 "군중효과"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맛있는 식당을 찾을 때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있는 식당을 선택한다. 다수의 선택을 따르려 하는 군중효과의 현상이다. 자신의 판단보다 다수의 선택에 따르다보니 정신력이 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군중효과에 휘둘리게 된다.

이와 같은 심리현상은 때때로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따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과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다수의 친구들이 따돌린다는 이유로 함께 따돌림을 하게 된다. 이러다보면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왜 그 사람을 따돌렸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면 다수의 결정에 따르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시절

기로원(耆老院) 신축 기공식
총기21년(1992) 3월 30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133-4 (법천사내)
건물내역 :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1동
용도 : 노유자 시설
기로원 상량식 : 총기21년 7월 11일

원정 종조님 육성법문 CD제작
총기27년(1998) 3월 30일

원정 종조님 육성법문 CD제작 (잡음 제거 후 7장에 수록함)

토론회의 (교화활성화 방안)
총기30년(2001) 3월 13일
교화활성화 방안 대 토론회의 개최

토론분야
1) 교화부진의 원인과 대책
2) 교화방편의 개선과 개발
3) 수행방편의 개선 및 개발
4) 사원시설 활성화 방안
5) 사원건축 양식의 개발
6) 신도회 활용 및 활성화 방안
7) 복지활동
8) 교육분야
9) 학술, 출판, 연구분야

사원명 : 밀인사(密印寺)

· **예전사원명 :** 동대문 선교부
· **개설일자 :** 총기 원년(1972) 11월 28일
· **불단이설 :** 총기 2년(1973) 9월 26일
· **사원 개명일자 :** 총기 4년(1975) 10월 29일
· **예전 사원 주소 :** 서울 종로구 숭인동 274
· **현 사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3길 22 (숭인동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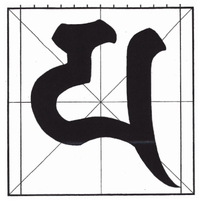
사진제공 = 재단사무국

▲ 밀인사 지진불사

▲ 밀인사 헌공불사

범자진언

< Ya字 >



< 범자 쓰는 순서 >

파동 수리지리 차연 옴뻐

hrdayama vartayisyami (발음 표기)
흐리다얌아 와르따이샤-미 (범음)
하리나야 마발다 이사미 (한자음)

★ **뜻 : 이 다라니를 염송하옵니다.**
· 하리다야 – 마음, 다라니. · 마발다 이사미 – 염송할 것이다.

사/원/탐/방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법향기 가득한 단향사

▲ 사진 = ① 옛 단향사 ② 현 단향사 ③ 단향사에서 바라본 통영 앞바다

향냄새 가득한 소박한 단향사(檀香寺)

▲ 단향사 약도

단향사

단향사는 경남 통영시 데매4길 15에 위치해있다. 단향사는 전단향나무의 단향을 줄인 말이다. 전단향나무는 인도에서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나무로 불상을 만드는 주재료 중에 하나이다. 또한 악취를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단향사 역시 다르지 않다. 단향사의 법당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법 향기가 가득하다.

평일에 방문한 단향사는 조촐했지만 단단했다. 단향사는 빌딩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필자는 빌딩의 형태를 한 사원은 별로 사원답다는 느낌을 받지 못 했는데 그런 마음이 무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당이 있는 층에 내리니 향냄새와 함께 엄숙함과 진중함이 마음을 눌러 내렸다. 사원 내부가 크진 않았지만, 소박하고 정갈했다. 누구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염주를 굴리는 보살도, 불공을 이끄는 지홍 전수의 모습도 무척 위엄있었다.

단향사에서는 신아조선소와 함께 통영 바다가 보이고, 통영 케이블카와 루지가 보인다. 사원에서 통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원에서 통영 케이블카 주차장까지 도보 10여 분이면 갈 수가 있다. 이렇듯 통영 관광지의 중심지에 단향사가 위치하고 있다.

통영

단향사와 아주 가까이에 통영의 최고 명물인 통영 케이블카 탑승지가 있다. 통영 케이블카는 미륵산으로 향한다. 미륵산의 명칭은 미륵존불이 장차 강림할 곳이라고 하여 명명되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현재는 육지와 연결된 미륵도 중앙에 있는 이 산에는 이름에 걸맞게 유명한 사찰이 여러 곳 있다.

미륵산 자락에는 고찰 용화사와 미래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암자가 산재해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용화사, 고려 태조 때 도솔 선사가 창건한 도솔암, 조선 영조 때 창건된 관음사, 50여 년 전 지은 미래사 등이다. 미래사에는 삼층 석탑에는 티베트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3과가 봉안되어 있다. 또한 용화사에는 석조여래상과 고려중기의 작품인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등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봉수대터 등이 유명하다.

고찰과 약수, 봄 진달래와 가을 단풍이 빼어나고 산정에 오르면 한려해상의 다도해 조망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며, 청명한 날에는 일본 대마도가 바라다 보인다. 그리고 한산대첩의 현장도 볼 수 있다.

또 통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공원은 통영시의 대표적인 성지로, 1592년 8월 14일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해상주도권을 다툰 해전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함으로써 해상주도권을 장악하여 식량보급로를 확보하고 일본 수군의 전의를 상실케한 임란의 최대승첩지가 이곳이다. 이순신공원은 성웅 이충무공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거룩한 호국의 얼과 높은 뜻을 선양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다.

▲ 사진 = ④ 부처님오신날 육법공양 ⑤ 기념사진

평소에는 초파일같이, 초파일은 평소처럼

단향사 사람들

현재 단향사의 신정회 회장인 박귀임 보살이다. 정각사를 오래 다니다가 통영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단향사의 설립 때부터 다닌 상수 보살이다. 처음 단향사가 생겼을 때 많은 고생을 했다며 박귀임 보살은 설립 당시를 회고했다. 초기에 사원을 정비하며 포교와 교도들을 관리하는 일은 직접 해보지 않아도 꽤나 어렵고 까다로운 일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박귀임 회장은 "록경 정사님이 계실 때 다 같이 함양 약초축제를 탑방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라며 그 순간을 회고했고, 초파일엔 특별한 행사가 있었냐는 질문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사람이 조금 더 적다는 것 뿐입니다. 늘 평소에도 초파일같이, 초파일도 평소처럼 지내려고 노력합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지홍 전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초임이신 것이 무척 하게 법도 잘 하시고, 늘 그랬듯 보살님들도 잘 챙기십니다. 워낙 보살님들이 바쁘다보니 전수님께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은데, 내색 않고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지홍 전수는 이제 계를 받은 지 1년이 된 새내기 전수이다. 지홍 전수는 스물일곱에 처음 단향사를 찾아 현재 스승이 되었다. 또한 총지종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중매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양쪽의 모친께서 모두 총지종의 교도였던 것이다. 지홍 전수가 말하길 "처음 왔을 때 스물일곱 막내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막내예요. 막내가 스승이 되어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합니다."라며 겸손을 표했다.

단향사 보살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에 한참인 바쁜 현대인들이다. 지홍 전수는 "대부분 오래되고 법을 잘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다. 타 사원보다는 젊은 보살의 비율이 꽤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평일엔 못 오시는 보살님들도 많지만, 불공기간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염송정진을 합니다."라고 전했다.

월초불공 기간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원당 출입문이 분주하다. 왜냐하면 교도들의 형편에 따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불공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향사는 불공 때는 누구하나 빠지지 않는 정진력을 보여준다.

지홍 전수는 "시무시절, 록경 정사님과 법수연 전수님께서 저를 많이 교육시키고 여러면에서 돌봐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도 볼 일이 있으면 직접 와서 봐주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제가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 때 배운 교육의 힘으로 정진하면서 현재의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다.

지홍 전수는 혼자 사원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혼자서 사원을 이끌어 가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으니, "그런 걸 생각하고 불평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해요. 또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은 보살님들에게 도움을 요청 했을 때, 분명 두 팔 걷고 도와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라며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홍 전수는 "많은 보살님들께서 증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늘 좋은 일로 가득하길 바라고, 늘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임을 다 하고, 제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도리를 다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여 많은 교도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취재=박설라)

주교 : 지홍 전수
주소 : 경남 통영시 데매4길 15 (도남동410-6)
전화 : 055-644-5375

지상설법

세상을 구하고 다스리는 길은 바른 마음이 근본

단향사 주교 지홍 전수

서원당에 오는 것이 곧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리에 있는가, 옆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는가, 무언가 샛길로 빠지지는 않는가, 마음이 늘 제자리에 가지런히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살필 때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두면 살피지를 못 합니다.

몸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 몸이 가면 마음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늘 바른 곳으로 향해야 마음도 바른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착한 마음을 가지고 불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은 다른 말로 정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세상에 한국 사람들만큼 정이 많은 국가를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문화의 팽배함으로 정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불공을 하는지, 오직 나의 이득과 행복을 위해서 불공을 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한 불공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든 근심과 고통은 바로 탐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없던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탐욕하고 욕망한다는 것은, 공연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이미 충분하고 충만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삶은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한 존재가 갑자기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하면 더 이상 지금 이대로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남들이 가진 좋은 집과 차와 소유물들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때부터 탐욕과 욕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에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습니다. 불치병도 치료하는 명의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사실 실력은 뛰어나나 재물에 눈이 어두운 명의였습니다. 그 명의에게는 친동생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론 가난했으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의 어머니가 큰 병을 얻게 되었는데, 명의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며 돈을 벌 생각만 하였습니다. 동생에게 병명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직 돈을 가져오면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는 식으로만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명의는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런 남편이 참으로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겨 남편 몰래 병명과 처방 받아야 하는 약을 알려주고, 직접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흘러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제때 찾아와야 할 동생과 어머니가 오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보니 멀쩡하게 나은 어머니를 보고 명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고 나니 아내의 소행임을 짐작했습니다. 명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약과 침을 이용해 아내를 병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돈에 욕심이 많다고 하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돈을 받지 않으면 치료를 해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몰래 병을 고쳐 주었다고 아내를 벙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심에 상식을 벗어나는 일은 저지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이기심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남의 불행은 물론 자신도 마음에 지옥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정과 이기심이 어느 정도에 미치고 있는지 잘 헤아려 봅시다.

불교는 곧 마음입니다. 마음 닦는다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것 입니다. 또한 불교는 사람을 만들어 가는 종교입니다. 많은 교도분들도 마음 잘 세워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말 한 마디를 예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이기심을 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김막숙 교도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찾아오는 고요의 기쁨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을 뻔 했던 순간, 부처님의 공덕으로 큰 도움을 받아 현재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때가 안 맞았는지 자꾸 몸이 아팠습니다. 자잘하게 감기를 앓기도 하고 이유 없이 복통,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아프다는 사실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말 흔한 말로 저를 달랬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지겨워질 쯤에, 저의 관세음보살님인 시고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고모님을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본인도 요즘 몸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을 따라 어느 절에 몇 번 가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지인은 절에 다니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남편과의 관계와 건강,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말을 제게 전하셨습니다. 그때는 당장 시고모님을 따라 절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종종 현교 절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오빠는 배를 타는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께서 늘 걱정이 많아서 저를 데리고 절에 갔더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절의 풍경소리, 향냄새, 스님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도 뜻도 잘 모르지만 절은 언제나 저에게 익숙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 가족의 제사를 현교절에서 지낼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절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분명 알게 모르게 마음의 평온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깨우침은 단번에 온다는 사실을 그때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슴께가 꽉 조여 답답함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딱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까마득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시고모님 생각이 불현 듯 떠올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시고모님이 무슨 일이냐 묻는데 어찌나 그때부터 눈물이 나던지요.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고모님, 무당집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어디든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시고모님께선 "이래서 안 되겠다. 내를 따라 절에 가자."하며 저를 단향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웃기는 일인데, 그때 제가 단향사에 들어서고 전수님을 뵙고 가장 먼저든 생각이 '전수님이 참 예쁘시네.'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던 미소,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손이 너무도 감사해서 제 마음속에 여적 그 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법당에 꽃꽂이를 해둔 것이 너무도 눈에 띄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멍하니 꽃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전수님께서 시부모 불공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셔서, 시부모님 불공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불공을 하는데, 막을 새도 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습니다. 이어서 통곡을 하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불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공을 하고 나니 어찌나 후련하던지요. 그 이후로 거짓말 같이 자잘하게 아프던 몸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자님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 좋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예쁘게 하는 것에 감사하고, 가끔 방생도 따라가십니다. 제가 일이 있어 절에 가지 못 하는 날엔 넌지시 "오늘은 절에 안 가나?" 하고 물으시는데 그런 모습이 귀여워 웃음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참 속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향사에 다니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을 모두 얻었는데, 제가 내는 희사금이 늘 적다는 사실이 가끔은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형편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고 머리가 복잡한 순간에는 늘 절을 찾게 됩니다. 일단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찾아오는 고요의 기쁨을 죽는 순간 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라이팅=박설라)

정두순 교도

하는 일 마다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때는 저 역시도 많은 풍파를 겪고 힘에 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지종을 만난 후로 법문에 따라 살다보니 하는 일마다 참 잘 되고 변창했습니다. 저의 진귀한 경험을 보살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큰 풍파는 각자님이 운영하던 쥐포 가공 공장이 망한 일이었습니다. 잘 될 줄만 믿고 각자님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였는데, 순식간에 공장이 쓰러졌습니다. 각자님이 사장이다 보니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공장을 붙잡고 있다가는 더욱 더 감당이 안 될 것 같기에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팔 수 있는 것은 죄다 팔아 가면서 공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단칸방 하나에 겨우 월세를 내며 사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네 친구의 어머니한테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사연인즉슨 평소 너삼 좋은 아들은, 친구네 집에서 밥도 곧잘 얻어먹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도통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낯빛이 많이 어두워서 걱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해졌다는 아들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을 털어놓자,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니는 절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곳은 바로 정각사였습니다. 일요일을 맞춰서 가보니,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수많은 신발들이었습니다. 서원당 안에는 신발들의 주인인 많은 보살님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도 없는 그 곳에서 막대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막대기가 명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에 어떤 힘이 있긴 있으니 이렇게 모였겠지.'

살림이 나아지길 간절히 바랐던 저는 희사금을 차비로 대신하여 열심히 불공에 매진하였습니다. 자면서도 옴마니반메훔을 읊조릴 정도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 즈음 각자님의 옛날 직장 동료가 고물장사를 제안해왔습니다. 울산에서 시작하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조금 겁이 났습니다. 전수님에게 조언을 구했고, 일단 법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울산으로 가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죠."

그렇게 막상 울산에서 고물장사를 시작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고물로 트럭을 한 차 채워야 팔 수가 있는데 그 한 차를 채우는 게 어려웠습니다. 법문이 나오는 대로 울산에 왔지만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나면서도 불공을 건너뛰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내 마음을 살펴주고 있겠지, 하는 믿음으로 다라니에 의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산 실보사에서 자성일 불공을 마치자마자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산대학교 앞에서 하숙 좀 해볼래?"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이번에도 법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뜬 마음으로 하숙을 시작했습니다.

각자님과 저는 아들을 키우는 마음으로 하숙집을 꾸몄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까니를 차려주는 다른 하숙집과 달리 시험기간에는 야식과 간식도 넉넉하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끈기가 적은 알람미로 밤을 지으면 배가 금방 꺼질 것 같기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좋은 쌀을 썼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인지, 방이 빈 적이 없었습니다. 잘 되지 않던 고물장사를 아예 접고 하숙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하숙 차례가 되길 기다리며 대기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성황이었습니다. 각자님이랑 저랑 둘이서는 일이 감당이 안 되어 실보사에 마음 맞는 보살님과 함께 일을 하며 하숙집을 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성일이면 꼬박꼬박 절에 나가 감사의 마음으로 염주를 돌렸습니다. 법문이 시키는 대로 울산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총지종을 만난 후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고 실제로도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습니다. 가족들도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네 식구도 오순도순 잘 살고, 딸네 식구도 참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며, 행여나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총지종과 법문이 있으면 그다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굴곡이 있기 마련이지만, 힘든 부분이 있다면 꼭 부처님께 여쭈어보고 법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을 참고하시어 언제나 평안한 신행생활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리라이팅=황보정미)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밀교문화와 생활』(26)

말[言]과 밀교수행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말[言]과 관련된 속담

말[言]과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여 다르고 아 다르다' '남자의 한 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다'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이와 같은 말들은 말의 중요성과 함께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경책이라 할 수 있다.

불교경전에서도 말의 중요성과 조심성을 강조하고 있다.『대집경』의 내용이다.

「보녀동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진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보녀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진실에 세 가지가 있으니, 부처를 속이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자성부처를 속이지 않으며, 중생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보녀동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진실한 말은 어떠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한 말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며, 말을 삼가 하여 잘 지키는 것이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진실한 말이라고 한다. 누구나 이 진실한 말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진실한 말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며, 말을 삼가하는 것이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불자란 부처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처를 속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겉으로는 올바른 척하면서 안으로는 온갖 추악한 말을 일삼고 행동하는 것이다. 입으로 추악한 말을 하고 몸으로 바르지 못한 짓을 행하고, 마음에 악심(惡心)을 가득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르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한 행이다.

요즘 성추행이나 성폭언 등이 신문과 방송의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오욕 가운데 하나인 성욕을 참지 못한 데서 오는 악업(惡業)들이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은 성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버릇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성적 판단과 자제력이 부족한 탓도 있다. 또한 뇌 구조상의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성도착증이나 관음증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한다. 성에 대한 그릇된 사고는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을 통해 벚어진 폐해라 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동영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를 예견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성(性)과 관련된 계율을 많이 제정하셨다. 사음(邪婬)하지 말라는 계율이 가장 대표적이다. 율장에 따라서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250계 가운데 성(性)과 관련된 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바라이죄에서부터 승잔죄, 바일제 등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바르지 못하고 청정하지 못한 것은 진실한 수행자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실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자성부처를 속이는 것이다. 자신의 자성부처를 속인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인다는 말이다. 이것 또한 부처를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의 기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식(常識)이라고 본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른 경우라 할 수 있다. 상식이 올바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비난받을 일인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상식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떳떳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아전인수(我田引水)나 자가당착(自家撞着) 일수록 떳떳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자신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 속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참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진실하지 못한 말의 세 번째는 중생을 속이는 것이다. 겉으로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안으로는 불자(佛子)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중생을 속인다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과도 같다. 이는 또한 부처를 속이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를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중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계율을 지키는 것이다. 곧 지계(持戒)가 부처를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중생을 속이지 않는 방법이자 길이라 할 수 있다. 지계행(持戒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존경받지도 못하는 것이다. 거기에 법력(法力)이란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율장에서도 '출가수행자다운 행이 아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법력이 있겠는가'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온다. 속인다는 것은 말로써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으로 속이거나 마음속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즉 삼업이 바르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업이 청정하지 않으면 불자라 할 수 없다. 특히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말이 항상 화근(禍根)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한 말이란 무엇인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며, 말을 삼가 하여 잘 지키는 것이며,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다.

진실한 말의 공덕을『정법념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진실한 말은 밝음 중에 제일 밝음이요, 정법의 계단이라 해탈이 있네, 무량한 재물이요, 제일 보배라. 이것은 왕후라도 뺏지 못한다.' 무릇 말은 진실해야 한다.

말과 관련된 밀교의 수행이 진언(眞言), 진실어(眞實語)

밀교에서는 불보살의 말씀을 진언(眞言), 진실어(眞實語)라고 한다. 참되고 실다운 말이란 뜻이다. 우리 중생들에게 참되고 실다운 진언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의 진언(眞言)이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상에서의 수행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생활 가운데 수행이자 실천이며, 참 진언(眞言)이라 할 수 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도록 노력하자.

"옴 바즈라바사 랍"

"옴 금강어(金剛語)보살이여 랍"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구경차제 중 심청정차제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구경차제의 수행은 석가모니붓다의 수식관과 12지연기관에서 발생하였다.

『금강염송차제』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옴아훔(oṃ āḥ hūṃ)의 3금강종자이다.

해탈법신의 증의제와 속제의육신이 어우러지는 경계는 육신에 존재하는 부정과 욕망을 정화한다. 종자를 관하는 간략한 의궤에 사실상 금강염송차제의 짚은 이치가 다 수용되어 있다.

후기밀교에서 3종자는 호흡의 들숨과 머묾, 날숨과 깊은 관계가 있다.

가나빠다는, "hūṃ은 날숨出의 자성이다. 제불이 현현하는 것으로 이때 머무는 상의 일체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oṃ은 들숨入의 자성으로 제불을 섭집한 것이다. 이때 요동하는 상의 일체법을 성취할 것이다.

āḥ는 머무는 숨住의 자성으로 제불을 집지하는 것이다.

호흡의 순환은 일체법에 대해 불이(不二)의 지혜에 드는 것이다. 이러한 본성을 집지하는 것이 곧 지혜살타의 자성이다"라고 하였다.

불교를 공부하다보면 육신의 욕망을 조복하는 방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데 3금강종자가 육신의 풍(風)을 다루어 육신의 내기를 제어하는 방편인 것이다.

금강염송차제의 다음은 심청정차제(心淸淨次第, cittavisuddhi-krama)이다.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것은 현교의 경우 주로 공성(空性)의 수습을 가리킨다.

밀교에서 청정은 『이취경(理趣經)』의 대락사상에 연유한다. 때문에 마음의 현상적인 면을 정화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선불교와 비교할 때 언어도단(言語道斷)·심행처멸(心行處滅)로 일컬어지는 수행이념은 아집과 법집으로 얽힌 마음의 상속을 단절하여 마음의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마음의 본성을 다루는 기술이다.

심청정차제에서 마음의 현상은 의타기성·변계소집성·원성실성을 가리킨다. 의타기성은 마음이 외적 경계와 간섭하는 연기적 현상이고, 변계소집성은 마음 내면의 자기 속박이나 해탈을 가리키며, 원성실성은 외적 연기와 내적 자기고립과 관계없는 본성을 말한다.

선불교의 수행은 의심을 모은 집중력으로 인해 습관적 상속을 벗어나 내적 관조를 완성한다. 반면 심청정차제는 분석적 기법으로 마음의 연기성과 고립성, 본성을 구분한 수행기법을 적용한다.

용수류의 데와는 "(하사의) 범부들은 현상(色)에 집착하고, (중사의) 부류들은 색에 대한 탐착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현상(色)의 본성을 아는 수승한 구예자들은 현상을 반련으로 삼아 해탈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후기밀교의 구경차제뿐만 아니라 밀교수행의 본질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탁월한 지혜를 볼 수 있다.

데와는 "아(我)와 아소(我所)를 집지하는 업은 중생들로부터 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무명의 업이며, 무명은 또한 미혹을 부르게 된다. 마치 조개를 은(銀)으로 보는 지각은 은을 봄으로써 물러가듯이, 또한 무아(無我)를 실견(實見)함으로써 미혹은 뿌리째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조개를 은으로 착각하는 지각'은 미혹이지만, 동일한 지각은 곧 해탈의 이유이다. 흥미로운 것은 무분별의 지각이 곧 돈오의 찰나에 이루어지는 점이다. 데와는, "범부가 종자를 지녀 번뇌의 넘물이 생기게 하지만, 지혜와 방편의 두 가지의 자량을 지님으로 인해 한 찰나에 보리를 현증한다"라고 하였다.

수행의 방편은 다르지만 유가행의 돈오와 선수행의 그것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인도 후기밀교의 수행에는 기술적 실천도가 풍부하다. 기록에 따르면 후기밀교 수행자들은 아만심을 가지기 십상이어서 성취법의 전반에는 제자를 간택하여 관정을 내리는 서약이 전반에 강조되어 있다.

후기밀교의 수행은 소박한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용수류의 스승들은, "수행자들은 모름지기 범부처럼 가야한다. 무분별의 법을 지닌 그는 모든 진언을 성취한다"라고 하여 승원의 성직자가 보이는 아만을 경계하고 있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교통

❶ 도심(시내)차량 제한속도 변경
현재 : 60km
➔ 2019년 (예정) : 50km

❷ 시속 10km~20km 제한 도로 도입(예정)

❸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화

❹ 음주운전 처벌기준 변경 (윤창호법)
면허정지 : 알콜농도 0.05% ~ 0.1%
면허취소 : 알콜농도 0.1% 이상
음주치상 : 징역 1년~1년 미만 (벌금 500~1000만원)
음주사망사고 : 1년 이상 유기징역
➔
면허정지 : 알콜농도 0.03% ~ 0.08%
면허취소 : 알콜농도 0.08% 이상
음주치상 : 징역 1년~15년 이하 (벌금 1000~3000만원)
음주사망사고 : 3년 이상 유기징역 or 무기징역

❺ 레몬법 시행
새로 산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고장이 날 경우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차량 인도 후 1년이내, 주행거리 2만km 미만)

❻ 도심(시내)차량 제한속도 변경
문을 열다 다른차에 상처를 내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공간 폭 확대
이전 : 2.3m ➔ 변경 : 2.5m

❼ 75세 이상 운전자 의무 적성검사 기간 변경
이전 : 5년 ➔ 변경 : 3년

종립 동해중 소식

교직원 정기인사 및 동해책마루 장서 열람대 교체

면학 분위기 쇄신의 날개를 달다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는 2월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기존 2003년도에 도서관 선진화 사업으로 들여놓은 장서 열람대와 낡은 의자가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해 일부 훼손되고 사용이 불편한 장비가 많이 있어서 500여 만원의 기금을 투자하여 이번에 새로이 단장 및 교체하였다.

이번 시설 개선 사업으로 동해중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은 물론 스스로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가 된다.

이번 개선 사업은 6인석의 10개 장서 열람대와 60명이 동시에 앉아서 학습할 수 있는 안락한 의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이와 아울러 2019학년도에 새로운 경영방침과 교육목표 설정 아래 실력있고 능력있는 신규 선생님을 새로 모셔 오는 교직원 정기 인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에 새로 본교에 부임하신 선생님은 정보과에 김재만, 국어과에 이예서, 보건과에 이지영, 기술과에 김성주, 영어과에 김경은 과학과에 김동현, 국어과에 심승진, 장유진, 체육과에 정인호, 생물과에 이지현, 가정과에 정진원 선생님을 새로 모셔서 다시 시작하는 동해중학교 새로운 100년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직교사 인사도 함께 단행하였는데 교무기획부장에 오영주, 교육과정부장에 최성봉, 생활안전부장에 김용민, 과학정보부장에 이종덕, 문화인성부장에 김대엽, 진로인문부장에 김연자, 진학복지부장에 김영생, 예술체육부장에 김은경, 방과후복지 부장에 오경식 선생님을 임명하여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와 다시 전진하는 명문 동해중학교로 탈바꿈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손안에 보이는 세상 NEWS FINDER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6회→12회까지 나눠쓴다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집에 방문해 가족 대신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연간 6회에서 12회까지 나눠쓸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 대신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비스 최소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길어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시간을 나눠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연간 이용횟수는 6회에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됐다.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줄이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이용횟수는 12회(12시간씩 이용시)로 늘어났다.

본인부담금도 기존 2만3천260원(16시간)에서 1만2천원(12시간)으로 낮아졌다.

[소지형 기자]

3월부터 자가치료 대마의약품 4종 수입 가능

3월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을 자가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지금까지 대마초 섭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 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었다.

의약품 당국은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 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춰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달 "대마 단속 48년 만에 마약법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와 품목 규제로 환자 불편은 여전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용 대마 처방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으려면 ▲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 진료기록 ▲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소지형 기자]

여산한담

조계사 템플스테이 1등 비결은 역발상에 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템플스테이'이다. 이것은 이제 고유명사가 됐다. 하지만 10년을 넘어서면서 템플스테이도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예전에 스님들만의 전유물인 사찰은 일반인들에게 외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전국 사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템플스테이는 단기간에 전국민적으로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무슨일이든지 오래되면 정체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선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쏟아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게 인지상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 1번지인 서울종로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서울 명소로 꼽히고 있다는 것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여행정보 플랫폼인 '마펑워'는 서울에 가볼만한 명소 10곳을 조사해 발표했다.

마펑워가 꼽은 10대 명소로는 △조계사 템플스테이 △명동 닭한마리 식당 △명동 난타공연장 △신세계면세점 △K-Pop 댄스 체험 △서울스카이 △메이필드호텔 △영등포 포장마차 △OGNe-스타디움 △MBC월드 테마파크(조화에 위치한 조계사 템플스테이는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갖추지 못했다. 이런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한 건 필주지인 지현 스님의 부임 이후부터다.

지현 스님은 봉화 청량사서 다양한 포교방편으로 도량을 일군 경험을 앞세워 템플스테이를 가꿔나갔다. 종로를 찾아온 외국인들과 늦은 저녁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문화가 있는 야경 템플스테이"달빛 조계사 수요음악회' 등 문화 포교 전략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위해 지현 스님은 일반인들이 최적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경내 조명 각도를 밤새도록 직접 맞추기도 했다.

해가 진 뒤 컴컴해진 종로를 사찰이 환히 밝히자 인근 호텔에 묵던 외국인들은 거리로 나와 사찰로 향했다. 사찰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다는 아일랜드인, 아들과 함께 좋은 체험을 했다는 스웨덴인, 동남아시아 사찰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베트남인까지…. 종로를 방문한 전 세계 관광객들은 조계사를 쉬이 지나치지 않았다.

마펑워가 선정한 새로운 서울 10대 명소에서 조계사 템플스테이가 1위를 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담겨있다. 단순히 도심 속에 사찰이 있다거나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다.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뒷이야기도 있다. 서울시가 마펑워에 명소선정 시 조계사 템플스테이를 넣어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또한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현대사회를 흔히 탈종교 시대라고 한다. 모든 종교가 위기라는 시대. 불교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노력과 관심 여하에 따라 조계사의 예처럼,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작금의 한국불교에 가장 절실한 것은 줄어드는 신도수 앞에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각고의 노력과 관심에 팔을 걷어 부치는 것이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1월 21일 ~ 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전세형	2/7	30,000
	황귀석	2/19	20,000
관성사	인선	1/21	20,000
	황성녀	1/24	10,000
기로스승	상지화	1/21	10,000
	수증원	1/21	10,000
	밀공정	1/21	10,000
	총지화	1/21	10,000
	법수원	1/21	10,000
	선도원	1/21	10,000
	법지원	1/21	10,000
	일성혜	1/21	10,000
	불멸심	1/21	10,000
	사홍화	1/21	10,000
	안주화	1/21	10,000
	해정	1/22	10,000
동해사	법선	1/21	10,000
밀인사	정정희	1/30	5,000
백월사	김강미자	1/29	10,000
법천사	반야심	1/31	10,000
법황사	유승태	2/2	10,000
	박미경	2/18	10,000
사원명무기명	박필남	1/15	10,000
	김갑선	1/21	10,000
	박필남	2/15	10,000
성화사	무명씨	1/22	20,000
	이학열	1/22	10,000
	무명씨	2/12	50,000
	이학열	2/12	10,000
실지사	유승우	1/28	10,000
	이도현	1/28	10,000
	이서현	1/28	10,000
	이루나	1/28	10,000
	박병성	1/31	20,000
	조성우	2/1	10,000
운천사	성수현	1/21	10,000
	무명씨	1/24	50,000
	이성미	2/13	50,000
	정용호	2/19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1/25	50,000
	김지영	1/25	10,000
	구미자	1/31	10,000
정각사	변순개	2/11	10,000
	안한수	2/17	10,000
지인사	승효제	2/15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25	50,000
총지사	원당	2/9	10,000
	묘심해	2/9	10,000
	손경옥	2/15	10,000
	최영아	2/15	10,000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2/15	50,000
화음사	무명씨	2/2	70,000
	강점이	2/2	10,000
	무명씨	2/7	10,000
	강승민	2/11	5,000
	강승훈	2/11	5,000
	최영미	2/11	50,000
	우인	2/15	10,000
	보명심	2/15	10,000
흥국사	지정	2/15	20,000

절기이야기

경칩

정각사 남해 정사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은 24절기 중 세 번째 절기로 계칩(啓蟄)이라고도 불리며 양력으로 3월 6일 경이다. 날씨가 따뜻해 각종 초목의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

중국 후한시대 역사가 반고가 저술한 역사서인 한서에는 열 계(啓)자와 겨울잠을 자는 벌레 칩(蟄)자를 써서 계칩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후에 서한의 7대 황제 시대에 놀랄 경(驚)자를 써 경칩으로 변경했다.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 논일원십이회삼십운'에는 "동면하던 동물은 음력 정월에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경칩에 해당하며, 음력 9월에는 동면을 시작하는데 절기로는 입동에 해당한다."라고 표기돼 있다. 조선 '성종실록'에 우수에는 삼밭을 갈고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며 춘분에는 올벼를 심는다고 하였듯이,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여 완연한 봄을 느끼게 된다.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벌레들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이날 농촌에서는 산이나 논의 물이 괸 곳을 찾아다니며,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개구리(또는 도롱뇽) 알을 건져다 먹는다. 또 경칩에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답을 쌓기도 한다. 특히 빈대가 없어진다고 하여 일부러 흙벽을 바르기도 한다. 빈대가 심한 집에서는 재를 탄 물그릇을 방 네 귀퉁이에 놓아두기도 한다.

경칩 무렵에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난다. 농촌은 답배모를 심고 과일밭을 가꾸며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때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완전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다. 보리, 밀, 시금치, 우엉 같은 월동에 들어갔던 농작물들도 생육을 개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농촌은 바빠지기 시작한다. 농부들은 겨울 동안의 휴식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일을 하여야 할 때이므로 이때 동면에서 깨어나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따라 한해 일의 많고 적음을 예견했다고 한다.

서양의 연인의 날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면 우리나라의 연인의 날은 3월 6일 경칩이다. 조선 세조 때 간행된 '사시찬요'에 따르면 선조들은 은행 껍질이 세모 난 것이 '수 은행'이고 둥근 것이 '암 은행'이라고 기록했다. 이에 남편과 아내가 경칩 날이 되면 각각 수 은행과 암 은행을 나눠 먹으며 사랑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처녀·총각들은 경칩 날이 어두워지면 좋아하는 상대와 함께 은행을 나눠 먹으면서 각자 은행 수나무와 암나무를 돌면서 사랑을 확인했다고 한다.

불교와 드라마

욕망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교육 풍자

SKY캐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석봉의 어머니이다. 가난한 살림에 떡 행상을 하면서도 아들 교육에 최선을 다한 어머니였다. 석봉 또한 어머니의 꿈을 실현시켜줄만한 그릇이었다. 어려서부터 글씨 쓰기와 책읽기를 즐기는 인재였던 것이다. 뛰어난 자식과 열정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엄마의 합작품이 만든 결과이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는 열정이 넘치는데 아이가 그런 그릇이 못된다던가, 아니면 너무 지나친 욕망 때문에 방향성을 상실한 채 아이를 다그치기만 하는 부모라던가,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JTBC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시작은 위의 의문을 잘 보여주었다. 오직 아들의 서울대 의대 합격만을 바랐던 엄마가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을 드라마 시작과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교육열의 비정상성을 드러내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아들 박영재(송건희)가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는 가장 행복한 순간 왜 엄마 이명주(김정난)는 자살을 선택했을까? 드라마는 엄마와 아이의 엇갈린 욕망을 보여주었다. 엄마는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길 바랬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사람들의 대우가 달랐다. 드라마에서 보면 다른 엄마들은 전교 1등 하는 아이를 둔 엄마를 특별히 대우하고, 또 자식을 명문대 입학시킨 엄마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자식의 성공은 엄마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다기 보다는 엄마를 위한 욕망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을 다그쳤다. 자신의 욕망으로 자식이 겪게 되는 고통 같은 건 보려 않았다.

반면에 자식은 그런 부모를 원망했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그 행복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이명주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들에게 공부를 강요했고, 아들 박영재는 엄마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부했던 것이다. 이들 모자는 각자 다른 목표를 갖고 공부에 매달렸다. 그리고 결과는 엄마는 자살하고 아들은 정신병자가 되고, 가장 완벽한 순간 이들은 모든 걸 잃었다. 한석봉의 해피엔딩 같은 건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이 같은 팀이 되지 못하면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속한다. 드라마다보니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또 과장된 일면도 있지만 대체로 드라마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비뚤어진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이다.

차민혁 교수(김병철)는 자신의 딸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딸 차세리(박유나)는 하버드에 다니는데 오바마 대통령 딸과도 친구라고 했다. 그래서 차 교수는 어딜 가나 자기 딸을 자랑했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자신의 컴플렉스가 비로소 해결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 세리가 아빠의 욕망에 부합하기 위해서 가짜 하버드 학생 흉내를 내며 살아온 것이었다. 이 진실과 직면한 차 교수는 세리를 더 이상 딸로 여기지 않았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자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차민혁에게 자식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곤고하게 해줄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다.

드라마 속에는 공부 못하는 애들을 별레 취급하는 전교 1등생 강예서(김혜윤)도 나온다. 원래 예서는 할머니에게 무시당하는 엄마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서는 경쟁의 노예가 되었다. 엄마를 위한다는 가륵한 생각 같은 건 사라진지 오래이다. 예서는 좋은 집안 출신인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선지국밥집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엄마를 무시했고, 시험지유출 같은 편법으로라도 전교1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경쟁에서 살아남고 싶을 뿐이었다.

영재는 엄마를 복수의 대상으로 여겼고, 차민혁은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딸을 가차없이 버렸다. 자신을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킬 수 있는 유능한 엄마로 알았던 엄마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자 예서는 엄마를 버리고 임시코디네이터 김주영 선생님(김서형)에게로 달려갔다. 예서에게는 엄마보다는 임시코디네이터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SKY캐슬〉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는 욕망이라는 매개물로 연결됐고, 상대로부터 욕망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

교육이 욕망 실현의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드라마는 영리하게 보여주었다. 〈SKY 캐슬〉에서 보여준 교육에는 돈과 욕망만 보였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아무런 공감도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점점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교육이 점점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는 현실을 예리하게 고발하고, 사회성 짙은 이야기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생각거리를 주는 잘 만든 드라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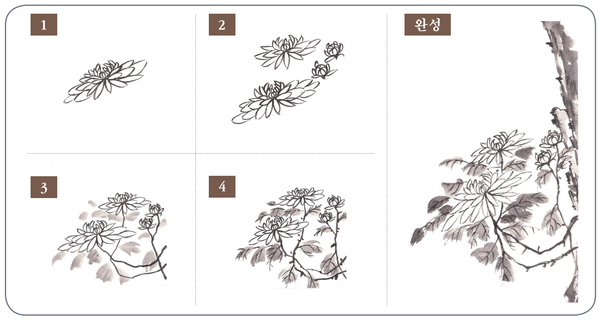
<자유기고가 김은주>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㉓

梅蘭菊竹

국화 따라 그리기 Ⅳ

덕광 정사 (실지사 주교)
각종 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수상



눈의 첫마음

정각사 명진 전수

지혜의 눈을 밝혀주는 길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안은 증조할머니 때부터 진언불교와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연연히 나를 수행해왔다. 지금 내가 불교총지종의 승직의 길에 들어선 것도 아마 그러한 집안의 DNA가 내 몸 안에 숨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삼십년도 훨씬 전 나는 순전히 내 자의에 의해 포항 수인사에 처음 발을 디뎠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인사 학생회에 몸을 담았다. 그리고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중학생부 여성 부회장 그리고 고등부 여성 부회장직을 하면서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당시 수인사 주교였던 록정 정사님께 "고놈 참 야무지네, 답에 전수하면 정말 잘하겠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나의 수인사 학생회 활동은 끝났지만, 직장을 따라 대구, 대전 등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대구에 있을 때는 개천사, 대전에 있을 때는 만보사에 나가면서 부처님과의 인연은 놓지 않았고, 서원당에 못 갈 때는 집에서 아침저녁으로 염송을 혼자서 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전라도 광양에 터전을 잡았다. 맞벌이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은 항상 부처님 곁에서 그리고 진언염송은 쉬지 않았다.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자성일을 지키려 광주 법왕사로 갔다. 새벽 5시 두 살배기 아이를 업고 집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광양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 다시 광주행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광주에 내려 다시 법왕사가 있는 광주공원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그렇게 법왕사를 다녔다.

왕복 6번의 버스를 6시간 이상 타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힘들다거나 혹은 환희 하다거나 하는 특별한 감성은 없었다. 회사원이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혹은 학생이 학교를 갔다 오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에 대한 나의 신행은 특별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닌, 그냥 내 주위를 머무는 공기처럼 햇볕처럼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았다.

종단의 승직을 생각하며 총지사에서 불공 할 때에도 부처님은 나에게 특별한 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았다. 그냥 운명처럼 이 길을 가는 거라는 느낌이었다. 내가 사람의 몸을 받아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정해진 운명……

처음 정각사에서 시무생활을 하면서 법상인 전수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어리버리한 저희 내외를 이끌어 주신 전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싶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일선에서 물러날 때 그래도 같이 해서 행복했었다고 말해주는 보살님이 한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나의 작은 바램이다.

Q&A ?!

묻고 답하기

Q.절에 가니 육법공양을 하더라고요. 육법공양은 무엇이고 어떤 공양물을 올리나요?

A : 불교에서 대표적인 공양물 6가지를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의식을 육법공양(六法供養)이라 하고 그 공양물을 육대공양물(六大供養物)이라 합니다.

향, 등, 꽃, 과일, 차, 쌀은 여섯 가지 중요한 공양물로 육바라밀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육대공양물과 육바라밀을 보면 향은 지계(持戒)를, 등은 지혜(智慧)를, 꽃은 인욕(忍辱)을, 차는 선정(禪定)을, 쌀은 보시(布施)를 과일은 정진(精進)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은 해탈향(解脫香)이라고 해서 해탈을 의미하고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게 하므로 희생을 뜻하기도 하며 화합과 공덕을 상징하지요.

등은 반야등(般若燈)이라고 하며 지혜와 희생, 광명, 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듯 지혜는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바로 중생을 무명(無明)의 어둠에서 제도하려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꽃은 만행화(萬行花)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고 해서 수행을 뜻하며 장엄, 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극락세계가 온통 칠보로 덮여 있고 여러 가지 꽃들로 향기가 그윽하다고 합니다.

차는 감로다(甘露茶)라고 해서 부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하지요. 맑고 신성한 성질을 가진 차를 음용함으로 맑은 정신과 깨끗한 생활을 영위하는 수행자들이 마시기에 적당하여 부처의 법문을 상징합니다.

쌀은 선열미(禪悅米)로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고, 과일은 보리과(菩提果)로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향, 등, 꽃 이 세 가지가 공양의 기본이 되며 이를 3대 공양 또는 기본공양이라 하며 향을 담는 향로와 등을 밝히는 촛대, 꽃을 담는 꽃병을 가리켜 불단 3구족(三具足)이라 합니다.

불자라면 사원 출입때에 제일 먼저 서원당에 들려 부처님 앞에 나아가 향 공양을 올리고 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공자와 대중을 향해 합장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자리로 가서 불공을 하거나 법우들과 법담을 나누거나 봉사 등 소일을 보는 것이 불자 예절의 순서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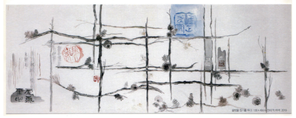
(법일 정사)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단장들이 부산 정각사를 방문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2000년 3월 창립 이후 부산불교 법음포교와 찬불가 합창의 대중화에 매진하고 있다. (통신원 =한미옥)

▲ 단음사. 전명환 각자님이 14대 이어 15대 영천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연임하였다. 모든 것은 다 부처님 은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신원=권순복)

◀ 법천사 전 회장 보리수 보살의 외손자 김백호 군이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2018년 청소년 과학영재 창의 연구 과제 발표대회'에서 교육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김백호 군은 현재 경기북과학고에 재학중이며, KAIST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원=김하정)



▲관성사. 동덕아트갤러리에서 2019년 2월 20일 ~ 26일까지 김수진 교도의 개인전이 열렸다. 〈글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천에 먹 채색 기법을 사용한 동양화를 전시하였다. (통신원=김융희)

◀ 국광사. 움추렸던 어깨를 펴니 어느새 봄이 와 있네요. 눈속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설매화의 소식을 전합니다. (통신원=신순희)

어울림소식

화음사 "축하합니다"
김도희(박옥자 보살 손녀) 연세대 합격
이정민(김상림 보살 손녀) 부경대 합격
최민석(이두남 보살 손자) 경북대 합격
박윤정양(장영순 보살 딸) 결혼 2월 24일

수계사
서병식 각자 아들 서성훈씨
공무원 합격 후 경북도청 임사

관성사
김대기(박길화보살 아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총지스케치

김홍균 작가

동체대비 정신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사찰순례, 성지순례

한중불교 수행체험단은 창저우시에 있는 영산대불 및 영산 범궁 참관을 시작으로 사찰과 성지 순례를 하였다.

그리고, 중국식 참선수행을 중국 스님들과 체험을 하고, 한중불교 좌담회도 이루어졌다.

난징 불정사에서 부처님 정골사리함 친견, 황산 미스터리 석굴, 황산 삼청산, 항주 서호 호수, 항주 고려사 사찰 등을 순례하였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스님과 불교총지종 정사로 구성된 한중수행체험대표단 28명은 지난 11월 23일부터 30일 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중국 강소성 상주시(常州市) 천녕선사(天寧禪寺)에서 개최한 『제11차 한중수행체험』에 참가하였다.

이번 수행체험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부속사업으로 중국불교계와 합의하에 매년 한해씩 중국과 한국 불교계가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중국불교 개최해로 천녕선사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체험내용으로는 예불, 참선수행, 사찰공양 등 사찰생활과 지역의 불교유적과 사찰순례, 문화탐방 및 한중불교토론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수행교류 일정이었다. 5일간의 일정 후에는 자체 성지순례로 황산과 고려 의천 스님이 수학하였던 항주 고려사 참배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행체험에 불교총지종에서는 록경 정사(밀인사 주교), 현일 정사(수계사 주교)가 참석하였고, 중국에서는 천녕선사 방장 곽진 스님, 강소성 불교협회회장 신청 스님,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 황매 오조사 방장 정자 스님, 한산사 방장 추상 스님 및 지역 불교협회 주요임원 스님들이 참석하였다.

동아시아의 불교를 교류하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한국과 중국의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일불제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1월 24일 오전 5시 30분 목탁 소리가 이곳 천녕선사의 아침을 깨웠다. 아직은 모두가 잠든 새벽시간 이었지만, 부처님을 향한 양국 스님들의 눈빛은 새벽별 보다 빛났다. 약 한 시간 동안 중국 스님들과 함께한 예불은 장엄함 그 자체였다. 법당 천장에 닿을 듯한 거대한 부처님 앞에서 청법게를 외우고 능엄주 주력, 아미타불 염송, 축원 등을 하며 세계평화와 정법이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오전 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국불교 수행체험 행사의 본격적인 막이 올렸다.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푸정(普正) 스님은 이날 개막식을 통해 한국에서 온 벗, 한국 스님들을 열렬히 반겼다. 푸정 스님은 "단장 스님을 비롯한 한국의 스님들은 제게 막역한 친구나 다름없다."며 "동남 제일총림 천녕사에서 수행을 함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인연인데, 직접 사찰에 머무르며 수행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포럼이나 학술회의 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순례 단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이번 교류는 1995년부터 지속해 왔다"며 "(양국) 사찰에서 진행하는 수행교류가 지속돼 양국 불교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기원했다.

천녕선사는 13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고찰로 수려한 강남의 평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찰의 규모나 건축이 매우 정교해서 동남 제일의 사찰('동남 제일총림')로 불리고 있다. 현재 100여명의 승려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참배객이 방문하는 명찰이다.

창건 후 1300여 년 이란 세월 동안 수많은 난을 겪던 중 '태평천국의 난'때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지만, 이후 청나라 때 40여 년에 걸쳐 복원이 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 그 규모나 건축 면에서도 단연 으뜸을 자랑한다. 한국의 대표단들도 이러한 유서 깊은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향에 흠뻑 빠졌다.

한국 대표단 스님들은 특히 이날 중국불교협회 측에서 마련한 강연을 통해 중국불교의 '질적 성장'을 몸소 체험했다. 문화혁명 때 폐허가 되다시피 한 중국불교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 인 듯하다. 호북 황매 오조사 방장 정츠(正慈) 스님은 '중국 선문화' 강의에서 불교가 현지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 불교의 발전을 확신했다.

중국불교협회 이사 신핑(心平) 스님은 같은 날 이뤄진 계율 강의를 통해 "계율은 곧 굳은 신심으로 승단 지키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이를 근거로 매월 두 번 포살과 자자의 형식으로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지는 시간을 갖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통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의 생존 공간을 굳건히 확보할 수 있으려면 계율을 지켜야하고, 이는 곧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며 "사찰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공간으로 여기고 우리 사회의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불자들로 하여금 신심을 떨어트리게 되고 (외부의) 공격의 빌미로 작용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한·중 불교좌담회 - 禪불교 어떤 역할하고 있나

자살과 이혼, 폭력, 알콜 도박중독 등 사회 병리적 현상에 대해 중국 선(禪)불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강소성 불교협회부회장 다추(大初) 스님은 "이러한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 마음에서 오는 병으로 이뤄진 현상으로 본다."면서 "사찰에 '심리실' 등 별도 공간이 있고,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찰에 와 마음의 응어리 푸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참선을 통해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대중생활 속에서 불교가 살아나야 하는데,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수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승가교육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반 신도들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을 하였다.

다추 스님은 "현재 강소성의 많은 사찰에서 매주 신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불교를 접하지 못한 일반인들에게 부처님 자비정신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소외계층의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자선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중국 근대 불교가 외형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실감케 하는 내용도 있었다.

탈종교 시대, 중국불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한국 스님 질문에 천녕선사 방장 쿼천(廓塵) 스님은 "중국에서 모든 종교는 종교장소 외에선 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국가적인 요구가 있다"며 "일반인들도 사찰을 종교적인 장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와 민족의 숨결이 어린 곳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들도 사찰을 종교적 의미에 한정해 보지 않는다. (무종교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한국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제애 다지는 수행체험 지속되길…

공식적인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면서 한중 양국 불교지도자들은 양국 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강소성 불교협회회장 신핑 스님은 "현재 강소성에는 1100여 곳의 사찰이 있고, 정부 규정에 따라 정식 수계를 받은 스님이 3000여명이 있다."며 "이에 걸맞게 한국불교와도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좌담회에서 염불, 참선, 주력, 등 불교 수행법을 현대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와 대사회적 역할,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며 "불교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대표단장 지민 스님은 "양국의 수행체험 행사는 불교발전과 양국 우호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배려하고, 한국은 중국을 배려해 형재애를 다질 수 있는 체험이 후학들에게도 지속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